

무산스님 (횡성무무암 회주 ·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장 · 사단법인 국제고미술진흥협회장)

입안의 도끼로 자기 몸을 찍어 구시화문에 걸리지 말아야

口是禍門

예수님도 추기경도 법정스님도 청문회 통과 못한다는 세상 논평, 인과응보의 자업자득 결과

‘소박함’과 ‘천진함’은 대개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심성(心性) 가운데 하나다. 마음속에 ‘잡티 같은 욕망’ 하나 없고, ‘생활의 파도’에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무명(無名)을 떨쳐 버린 구도자며, ‘위(位)’를 알지 못하리라. 횡성무무암 무산스님은 지상설법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명자(名子)에 얽매이지 않고, ‘살이 주는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는 수행자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무산스님은 불법의 오묘한 진리를 손쉽게 일목요연하게 경직된 거리감없이 명쾌히 일갈했다. 불교의 요체인 참 뜻을 설하는데 진실로 자유자재했다.

〈대담 : 종교세계신문 윤기순 기자〉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시면서 지금 까지 설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여래는 참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알찬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말씀다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허황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須菩提! 如來是真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誑語者 不異語者”

이 말씀은 모두 다섯 종류의 말씀입니다. 진어지나 실어자는 쉽게 이해가 가지만 여어자如語者是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해서 ‘말씀다운 말씀을 하는 분’이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부처님께서 너무나 진실 된 말씀이나 지극히 청정한 것을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어서 여어如語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금강경을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다섯 종류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이가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다가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에 걸려서 넘어졌 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구시화문口是禍門에 걸린 겁니다.

요컨대 여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말을 함에 있어서 여어함은 물론이려니와 기만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不誑語)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야(不異語)합니다.

요즘 세상은 언로言路가 트일 대로 트여서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언행뿐만 아니라 몸가짐까지도 올 바라야 합니다. 더욱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말입니다.

산승은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하도 세상이 시끄러워서 가끔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재미가 있어요. 청문회를 두고 그것을 통과하기가 참으로 힘든가 봅니다.

어느 일간지 1면 머리 제목이 “대독 총리에 ‘추기경 級’ 자격요구”라고 했고 뒤이어 어느 미디어는 “청문회 예수님도 통과 못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추기경님도 통과 못 한다는 글에 어느 네티즌은 “법정스님도 통과 못해” 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세상



무산스님은 “최근에 어떤 이가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다가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에 걸려서 넘어졌다”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짓는 업의 결과와 값음의 인과응보 진리를 깨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든 사회든 인재를 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 가 봅니다. (장자莊子)의 우화寓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씨라는 성을 가진 목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사당 앞에 우뚝 솟은 상수리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상수리나무는 몇 백 년이 되었는지 그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 다. 이 큰 나무의 그늘은 십여 마리의 소를 가릴 수 있고, 줄기는 몇 아홉인지 짐작할 수 도 없고 높이는 80자쯤의 위에 가지가 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있는 목수는 거목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배를 건조해도 될 만한 가지가 열 개도 넘는데 이를 그냥 지나치자, 뒤따르던 제자들 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이런 훌륭한 거목은 이제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스승님께서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데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석씨 목수 는 대답합니다.

‘별다른 쓸모가 없다면, 저 나무는 무용無用의 거수巨樹야. 저것으로 배를 건조 하더라도 가라앉을 것이고 관楫을 만들어도 곧바로 썩어버릴 것이다. 도구를 만들어 쓴 다 해도 이내 부서질 것이며, 문이나 문짝을 만든다 해도 수지樹脂가 나와서 망가질 것 이고, 기동으로 세우면 곧바로 벌레가 먹을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나무란 말일세. 쓸모 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거야.’

이 비유는 ‘쓸모없는 것 無用’과 ‘쓸모 있는 것 用’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입 니다. 시시비비와 가可 불가不可가 끝없이 뒤얽히는 이 세상에 있어 특히 권력이 작용 하는 사회에 있어서 천수를 다하여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위의 얘기에서 보이는 것은 쓸 수 있는 재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인사는 하지안음만 못한 겁니다.

앞서 자기가 한 말에 걸려서 넘어진 분도 지나치게 아전인수 격으로 말을 만들어 한 것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열광적인 교도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부분만 가지도도 그는 매우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광적인 신앙인으로서 치우친 행정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에 앉을 자격을 잃은 겁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얽어진 물과 같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부처님은 일찍이 법구비유경에 계승을 남 겠습니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잘난 체 뽐내면서/함부로 남을 업신여기면/미움과 원한이 움을 틔다.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씨로/남을 높이고 공경하며/땀힘을 풀고 욕됨을 참 으면/미움과 원한은 저절로 사라진다.”

무릇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그 입안에 도끼가 생겨/그로써 제 몸을 찍나니/그것은 악한 말 때문이리라.”

‘입 안의 도끼로 자기 몸을 찍는다.’ 주의 깊게 새겨야 할 명언입니다. 구입口業의 인 과관계를 가리키는 이 계승은 바로 우리네들이 일상적으로 짓는 업의 결과, 또는 그 값 음의 업보, 또는 응보를 생각해 하는 귀감입니다.

바로 이 인과 응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짓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 자박자수自縛自手라 합니다.

업에 의해서 그 받는 과보의 시기가 있는데 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순현보로서 과 보를 현재에 받는 것이고, 순생보는 이 다음 생에 가서 받는 과보이고, 순후보는 내생이 아니더라도 그 자신이 뿌린 것을 언젠가는 거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의 일은 거저 되거나 우연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므로 오늘 날의 세 태 또한 그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전(經典)에 감성을 입힌...무산스님 지장경 이야기

“사바에서 업장을 태워버려라”

이 한권의 책으로 우리는 대승적 대원력의 큰 보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빛내주신 지장보살처럼 중생을 위한 우리를 모두가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풍요로운 정신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곳곳의 암울한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참사랑과 대자비심을 실천합시다.

(본문중에서)

■ 구입처 : 횡성 무무암 (033)344-8833 / 서울 (사)전사련 (02)2198-5022~4

